



2021년 07월 01일 · China Issue

# 6월 관영 PMI 둔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 기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China Strategist

홍록기

02) 3787-4733

hongluckiee@kiwoom.com

RA

조소정

02) 3787-3693

sojcho@kiwoom.com

## Compliance Not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SUMMARY

6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는 50.9, 53.5, 52.9를 기록했다. 중국 경기 회복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및 서비스업 부문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광둥성 지역에서 Covid19 신규 확진자 발생 이후,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일부 지표 둔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형기업 PMI 부진이 여전하며, 생산자 물가를 선행 하는 항목들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항공, 숙박, 요식업 부진이 전체 서비스업 경기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대부분 항목들이 경기확장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강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때문에 중국당국은 기존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중소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6월 관영 PMI에서는 수출 및 서비스업 부문의 둔화가 두드러짐

6/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관영 PMI를 발표했다. 6월 중국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0.1pt 하락한 50.9를 기록했다. 여전히 경기확장 국면(50 선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50.8)도 소폭 상회했으나, 3개월 연속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동월 비제조업 PMI 53.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55.3) 및 이전치(55.2)를 크게 하회했다. 동월 종합 PMI는 전월대비 1.3pt 하락한 52.9를 기록했다.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및 서비스업 부문의 둔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광둥성 지역의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5월 말 광둥성에서 Covid19 신규 확진자가 일간 기준 10명을 하회했으나, 이동통제 및 영업중단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업규모별 제조업 PMI와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소형기업 PMI의 부진이 여전하며, 생산자 물가를 선행하는 항목들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대형기업 PMI는 전월대비 0.1pt 하락한 51.7, 중형기업 PMI 전월대비 0.3pt 둔화된 50.8을 기록했다. 소형기업 PMI는 49.1을 기록, 전월대비 0.3pt 상승했으나, 경기위축 국면에서(50선 이하) 벗어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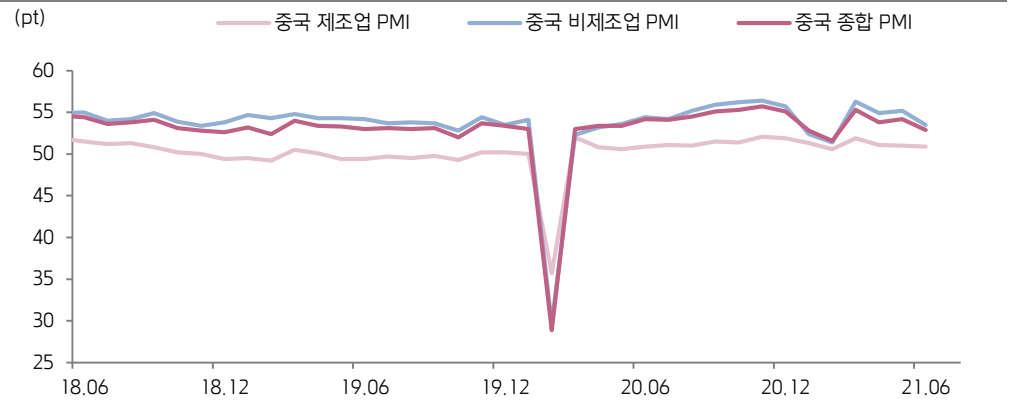
생산 부문은 반도체 공급 부족, 월초 남부지역 전력난과 일부 업종 설비 보수 영향으로 전월대비 0.8pt 하락한 51.9를 기록했다. 신규주문 부문은 51.5로 전월대비 0.2pt 상승했다. 반면 수출 부문은 오히려 전월대비 0.2pt 하락한 48.1을 기록, 경기위축 국면에서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접종율이 높아지고, 자국 서비스 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광둥성 지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일부 항만 가동이 중지된 점도 수출 PMI 둔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생산자 물가를 선행하는 원재료 가격 부문과 출하 가격 부문은 각각 61.2, 60.6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11.6pt, 9.2pt 감소했다. 중국당국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조치와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본토 내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수입 PMI도 경기위축 국면으로(50선 아래) 내려왔다.

비제조업 PMI의 경우, 건설 PMI는 60.1pt를 기록,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비스업 PMI가 전월대비 2.0pt 하락한 52.3을 기록했다. 항공, 숙박, 요식업 부문이 부진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경기 둔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광둥성 지역이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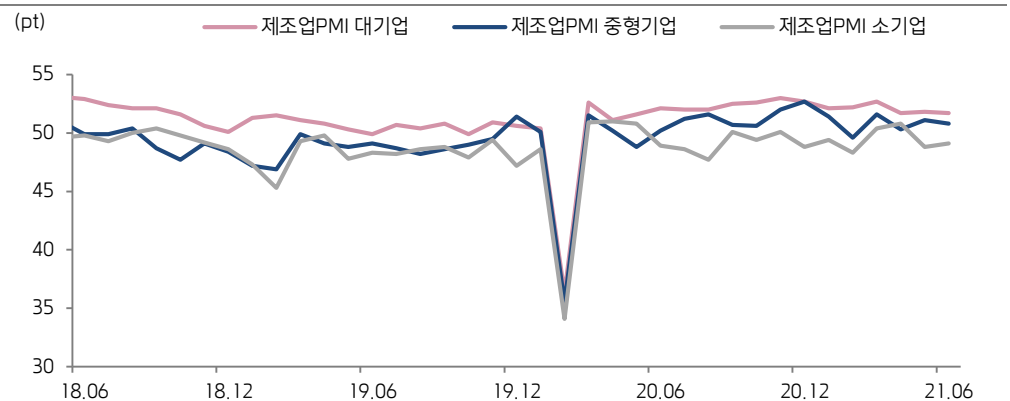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항목들이 경기확장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강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때문에 중국당국은 기존의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중소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중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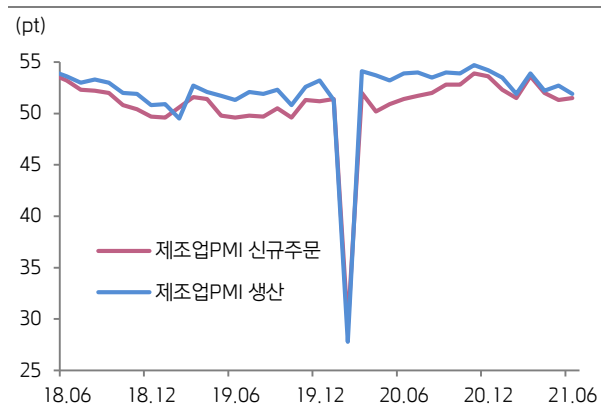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기업규모별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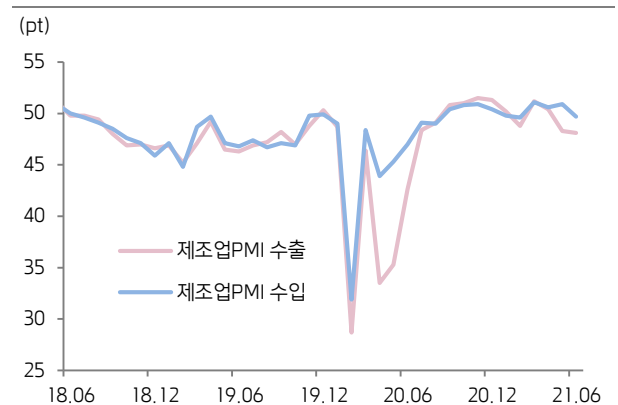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제조업)신규주문, 생산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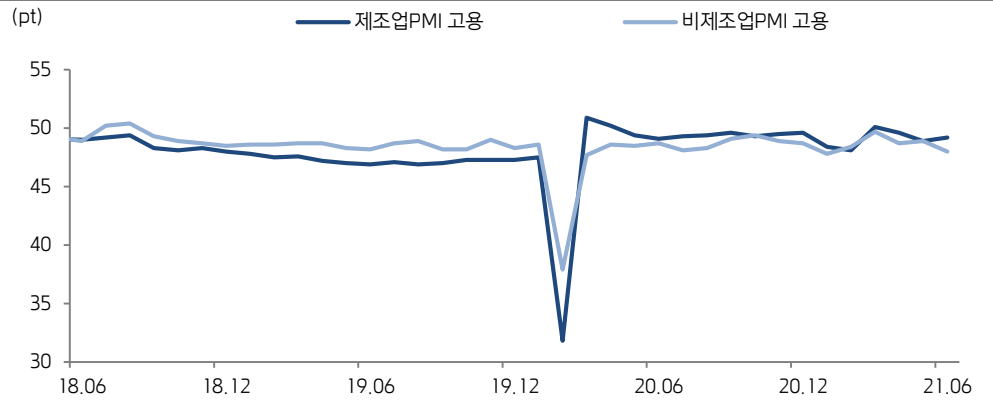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제조업)수출, 수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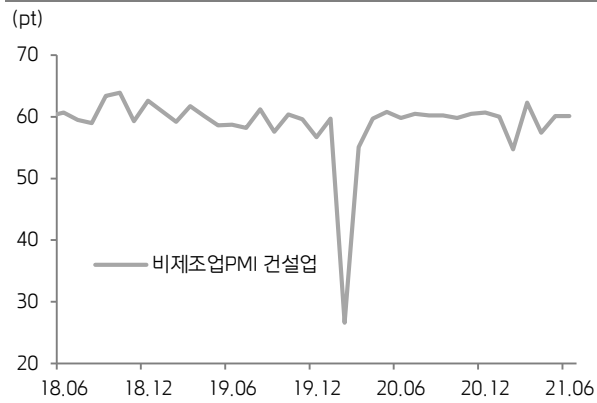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고용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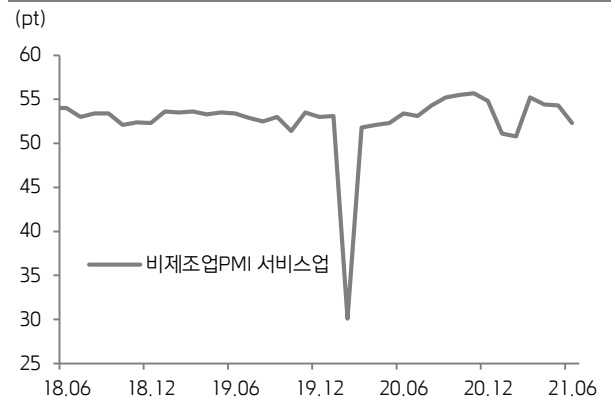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비제조업 건설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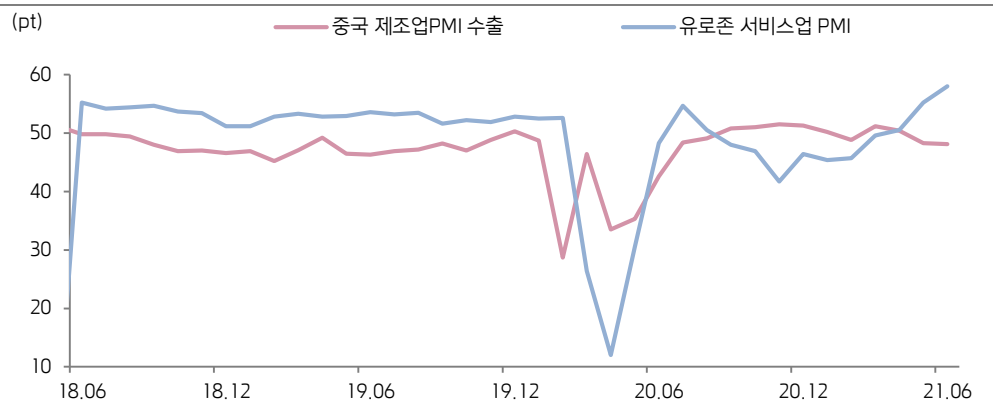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비제조업 서비스 PMI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중국 수출 PMI 및 유로존 서비스 PMI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PMI Table

지표 / 날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중국 PMI 지수	종합	53.4	54.2	54.1	54.5	55.1	55.3	55.7	55.1	52.8	51.6	55.3	53.8	54.2	52.9
	제조업	50.6	50.9	51.1	51.0	51.5	51.4	52.1	51.9	51.3	50.6	51.9	51.1	51.0	50.9
	비제조업	53.6	54.4	54.2	55.2	55.9	56.2	56.4	55.7	52.4	51.4	56.3	54.9	55.2	53.5
제조업 PMI	생산	53.2	53.9	54.0	53.5	54.0	53.9	54.7	54.2	53.5	51.9	53.9	52.2	52.7	51.9
	신규수주	50.9	51.4	51.7	52.0	52.8	52.8	53.9	53.6	52.3	51.5	53.6	52.0	51.3	51.5
	원자재 재고	47.3	47.6	47.9	47.3	48.5	48.0	48.6	48.6	49.0	47.7	48.4	48.3	47.7	48.0
	고용	49.4	49.1	49.3	49.4	49.6	49.3	49.5	49.6	48.4	48.1	50.1	49.6	48.9	49.2
	공급기관 인도시간	50.5	50.5	50.4	50.4	50.7	50.6	50.1	49.9	48.8	47.9	50.0	48.7	47.6	47.9
비제조업 PMI	건설업	60.8	59.8	60.5	60.2	60.2	59.8	60.5	60.7	60.0	54.7	62.3	57.4	60.1	60.1
	서비스업	52.3	53.4	53.1	54.3	55.2	55.5	55.7	54.8	51.1	50.8	55.2	54.4	54.3	52.3

자료: 국가통계국,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